

서문

Introduction

Issue Focus, 6(3), pp. 5–6, 2025

Eunsun Lee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SEM Global Ageing Center)

취약성은 모든 인간의 삶에 늘 함께하는 보편적인 조건이다(Fineman, 2017). 취약성이 드러나는 방식과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 질환을 겪는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하고(예, 치매에 대해서는 ASEM Global Ageing Center, 2025 참조), 또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취약해지기도 한다(ASEM Global Ageing Center, 2024). 그러나 한 개인의 삶에서 타인이나 사회적 구조에 의존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는 현실이다(Emory University, n.d.). 이번 호의 주제인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활동 전반을 가리킨다(Kornfeld-Matte, 2015, p. 13). 여기에는 세면이나 옷 입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처럼 직접적인 돌봄뿐 아니라, 가사 노동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도 포함된다(United Nations, 2024). 다시 말해 돌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며, 필요할 때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며(Fisher & Tronto, 1991, as cited in Tronto, 1993, p. 103), 이는 돌봄이 인간의 삶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돌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해 왔다. *Politics*에서 Aristotle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논의했지만, 예컨대 18세기 학자들은 가사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Bunting, 2021d). Florence Nightingale의 시대에 간호는 자기희생적이며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소명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적절한 재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다(Bunting, 2021b). 더 나아가 사람은 나이듦과 죽음의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이 점차 약화되며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역시 이상화된 삶의 이미지로 가득 찬 사회(Lawton, 1998)나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문화 속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돌봄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 돌봄이 필요해지는 때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맞이하게 된다.

돌봄의 아이러니 (Irony in Care)

성별 불평등을 비롯해 나이, 장애, 인종, 민족적 출신(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5), 이주 유무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과 같은 여러 사회적 불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에 더해 돌봄 자체, 나아가 노인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은 돌봄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떨어뜨린다. 돌봄 접근성을 둘러싼 사례를 보면, 예컨대 우크라이나의 무력 분쟁 상황에서 노인들은 식량 확보에 대한 지원 부족(91%), 깨끗한 식수 부족(79%),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 부족(34%), 난방 부족(91%), 위생용품 부족(75%)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HelpAge International, 2022). 현지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기부가 영유아의 필요에 주로 집중되면서 고령자의 필요가 간과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AGE Platform Europe, 2022, Section Emergency Response in Ukraine). 이와 유사한 상황은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서도 관찰되었다. “고령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돌봄을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도적 대응은] 고령자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 2019, p. 32).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그 질은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예산을 훨씬 웃도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재가돌봄 회사의 돌봄 노동자는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 시간 이상을 쓸 수 있었으며(Bunting, 2021a), 이러한 충분한 상호작용이 자신의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는 이용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회당 15 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보건·안전 교육도 단 세 시간만 받은 상태였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서 “아침에 따뜻한 음료 하나를 준비해 줄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었다. ... 눈을 마주칠 시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갈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Bunting, 2021a, para. 43).

돌봄 노동자들이 받는 대우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의

노동은 자주 저평가되며, 그 “중요성, 범위, 섬세함, 그리고 복잡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Bunting, 2021c, para. 8). 전 세계 돌봄 노동자의 약 3분의 2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18), 여성은 전체 무급 돌봄 노동의 76.2%를 담당하는데, 이는 남성이 수행하는 양의 3.2 배에 해당한다(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18). 전 세계적으로 15세 이상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 돌봄 노동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미화 10조 8천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세계 기술 산업 전체 규모의 세 배에 해당한다(Oxfam, 2020). 가사노동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약 90%는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여성은 무급 또는 저임금의 돌봄 노동을 불균형적으로 떠맡고 있으며, 충분한 법적 보호 없이 인종, 민족, 국적, 성적 지향, 계급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Oxfam, 2020). 돌봄의 아이러니는 바로 돌봄을 가장 덜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집단이 사회에 필수적이면서도 “기술이자 예술이고, 역량인 동시에 세심한 배려를 요구하는”(Bunting, 2021c, para. 14) 고된 돌봄 노동을 불균형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수행하면서도 보상이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돌봄 체계의 전환 (Toward Transformed Care Systems)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에 공명하며, 이번 호에는 네

명의 필자가 각자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제시한 글을 수록했다. Niki Kalavrezou 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혼자 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의 맥락에서 장기요양의 현실을 진단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돌봄 노동자의 풀은 줄어들고 있으며, 필요한 돌봄을 뒷받침할 재정 여력 역시 함께 축소되고 있다. 이주는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보편적 보장과 안정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돌봄의 책임을 가족과 비공식 돌봄 영역으로 넘기며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 Kalavrezou 는 장기요양에 대한 공공지출이 부담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핵심에 놓여야 할 필수적인 투자라고 주장하며, 중장기적 비전에 기반한 선제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서 돌봄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호주 고령자 돌봄법 2024(Aged Care Act 2024)에서 지원된 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에 관한 국가 정책 성명 마련을 위한 자문그룹 논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Craig Sinclair 는 이 새로운 법이 고령자 돌봄에서 지원된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하는지를 논의한다. 아울러 그는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데, 이는 호주의 연방제 구조, 인지장애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고령자 집단의 이질성, 그리고 '의지와 선호'라는 권리 기반 개념을 실제 정책과 서비스 운영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Sinclair 는 기존의 고령자 돌봄 관련 법률과 달리 이 법이

인권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호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 및 사회 돌봄 제공에서 지원된 의사결정의 제도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호주 특유의 정책 환경과 인구학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는 결론짓는다.

Sina Yi 는 치매 진단이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과 역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자 일본의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Restaurant of Mistaken Orders)'과 서울의 '기억다방(Memory Cafe)' 사례를 제시한다. 네덜란드에서 Bère Miesen 이 시작한 '기억다방(Memory Cafe)'에서 영감을 받은 이 두 시도는 치매를 겪는 사람들이 단순히 교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계 곳곳의 다른 긍정적 실천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공간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대화 중심의 소통 방식을 택한다. 치매를 겪는 사람들이 손님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고, 손님들은 그 과정에서 종종 이들을 돕는다.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손님들은 이를 열린 태도와 이해, 그리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웃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Yi 는 이러한 짧은 활동과 만남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자유롭고 돌봄이 살아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Ketchuda Rodngern, Orawan Prasitsiriphon, Chadatan Osatis, Ruttiya Bhula-or 는 태국의 돌봄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들은 보편적 건강보장과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태국의 개인 중심·재가 우선 돌봄이 제도

운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돌봄 체계를 이용 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질과 같은 인권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당한 성취가 확인된다. 다만 Rodngern et al.은 비용 부담 문제, 돌봄 인력의 취약성, 참여·투명성·권리구제의 미흡, 형평성에 대한 체계적 점검의 부족 등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도 함께 지적한다. 이들은 태국 돌봄 체계의 현재 성과가 건강한 고령화와 통합적 돌봄에 관한 국제적 지침과 의미 있게 부합하며, 향후 개혁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번 호는 돌봄이 인간의 삶 곳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돌봄의 가치는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혜택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형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아울러 돌봄의 책임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 돌봄 정의(care justice)는 모든 사람이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함께 숙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번 호가 그러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AGE Platform Europe. (2022, March 15). *Ukraine: The 'oldest' humanitarian crisis in the world*. <https://www.age-platform.eu/special-briefing/ukraine-%E2%80%98oldest%E2%80%99-humanitarian-crisis-world>
- Amnesty International. (2019). *Fleeing my whole life: Older people's experience of conflict and displacement in Myanmar*.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6/0446/2019/en/>
- ASEM Global Ageing Center (Ed.). (2024). *Climate change and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https://asemgac.org/board/view?bd_id=pb01&wr_id=33
- ASEM Global Ageing Center (Ed.). (2025). *Dementia and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https://asemgac.org/board/view?bd_id=pb01&wr_id=516
- Bunting, M. (2021a). Bearing witness. In *Labours of love: The crisis of care*. Granta.
<https://granta.com/products/labours-of-love/>
- Bunting, M. (2021b). Care as dark matter. In *Labours of love: The crisis of care*. Granta.
<https://granta.com/products/labours-of-love/>
- Bunting, M. (2021c). Introduction. In *Labours of love: The crisis of care*. Granta.
<https://granta.com/products/labours-of-love/>
- Bunting, M. (2021d). The invisible heart. In *Labours of love: The crisis of care*. Granta.
<https://granta.com/products/labours-of-love/>
- Emory University. (n.d.). *Concepts for the vulnerability and the human condition initiative*.
<https://web.gs.emory.edu/vulnerability/about/concepts.html>
- Fineman, M. A. (2017). Vulnerability and inevitable inequality. *Oslo Law Review*, 4(3), 133–149. <https://doi.org/10.18261/issn.2387-3299-2017-03-02>

HelpAge International. (2022). *Older people on the edge of survival in eastern Ukraine*.

<https://www.helpage.org/news/older-people-on-the-edge-of-survival-in-eastern-ukrain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18).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 <https://www.ilo.org/publications/major-publications/care-work-and-care-jobs-future-decent-work>

Kornfeld-Matte, R. (2015).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No. A/HRC/30/43). United Nations.

<https://www.refworld.org/reference/themreport/unhrc/2015/en/106781>

Lawton, J. (1998). Contemporary hospice care: The sequestration of the unbounded body and 'dirty dying.'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20(2), 121–143.

<https://doi.org/10.1111/1467-9566.00094>

Oxfam. (2020). *Time to care: Unpaid and underpaid care work and the global inequality*

crisis. <https://policy-practice.oxfam.org/resources/time-to-care-unpaid-and-underpaid-care-work-and-the-global-inequality-crisis-620928/>

Tronto, J.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003070672>

United Nations. (2024). *Transforming care systems in the contex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our common agenda* [United Nations System Policy Paper].

<https://unsdg.un.org/resources/transforming-care-systems-un-system-policy-pape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5). *Human rights dimension of care and support* (No. A/HRC/58/43). United Nations.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76487>